

여고생의 성 접촉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손 정 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은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하여 학습되며 표출된다. 인간의 성은 사회구조 속에서 창조되고 또한 통제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규범과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상황은 개방화, 국제화 시대이며,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향락 문화의 발달, 성의 상품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에 대한 노출, 바람직한 성교육의 부재 등이 성의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Kim, 1999).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손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또래 이성친구에게 파급하기도 한다. 십대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벼운 성 접촉으로부터 이어지는 성교경험은 임신, 낙태, 성병 감염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혼모, 학업의 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사행아 출산,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탈락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불임, 자궁 외 임신, 전처 태반 등의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문제와 함께 양육의 문제, 결혼 부적응 등

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발단이 되기(Choi 등, 1999)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의 성 행태는 이성 교제율이 48.1%, 성 경험률이 4.5%, 임신 경험률이 0.5%, 낙태 경험률이 0.4%, 성병 경험률이 0.8%, 피임 경험률이 3.4%에 이르고 있어(Chang, Kim, Han과 Park, 2000), 십대 성 경험률, 임신을 및 키스율 등이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의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는 나타나 있지만 십대 성문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비행은 성적 자질이나 성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며, 성역할 사회화가 소년들에게는 비행으로 이끌릴 수 있는 태도와 관심, 인성을 갖도록 사회화되는 반면에 소녀들은 비행을 제어하는 태도와 이해, 심성을 갖도록 사회화한다(Kim, J. H.와 Kim E. K., 1995). 성역할 정체감은 성정형화 과정의 결과 각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어느 정도씩 습득되면서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Chung, 1987). 따라서 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의 성역할 정체감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된다(Kim, 1994). Bem(1974)을 비롯한 근래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역할의 이상적인 모델로써 남성성, 여성성을 포함하는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행동에 유연성이 있고, 자긍심이 높고 성취 지향적이며 인간관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 jnsohn@hanseo.ac.kr)

제가 원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지적이라고 하였다. 양성성은 성 전형화된 성격보다는 좀더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성의 여성들의 비행 가담율이 가장 낮고(Loy와 Norland, 1981),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도가 높았다(Choi, 1999).

정체성의 발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 성과의 관계형성을 열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Chang, 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 문화는 그동안 성적으로 불평등했던 가족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녀에게 차별적 성윤리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Cha, 1999).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고(Ministry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9), 1996년도에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남녀 평등사상과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Kim, 2000).

자아존중감과 성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제일 높아 청소년기에 선택하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 접촉을 하지 않을 때 심대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으며(Lee, 2000), 자아 존중감이 낮은 여학생에게서 성교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rr, Silbrant, Black, Rauch, and Ingersoll, 1989).

지금까지 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남녀차이는 생물학적인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지식, 성태도(Kye와 Moon, 1999), 성경험이나 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Ku 등, 1996, Park 등, 1998, Lee, Sunwoo와 Ku, 1999, Chang, Kim, Han과 Park, 2000)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역할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Kim, 2000)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Lee, 2000)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성 접촉 경험에 이들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에 대

한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식 없이는 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된 후 그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 접촉 수준을 파악하고, 성 접촉 수준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성교육의 내용 및 방향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고생의 최종 성 접촉 경험을 확인한다.
- 2)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확인한다.
- 3) 여고생의 성 접촉 경험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접촉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신체적 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Yoon,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 13가지 각각의 신체적 성 접촉 경험정도를 말한다.

2)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인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 (1994)의 한국 성역할 정체감 도구로 측정된 여성성, 남성성 점수에 따라 분류한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등을 말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도구를 Chun(197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 접촉 경험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표적 모집단은 이종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2학년 여 학생이고, 근접 모집단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여 학생 중 층화 표출법으로 표출된 633명의 여학생을 표 본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의 인문계 고교 200개와 실업계 고교 총 70개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63,375명중 633명을 층화 표집 하였다. 층화 표집 방법은 서울시의 11개 교육구청을 동, 서, 남, 북의 4개 지역으로 재편성 하여 4개의 표집 대상에서 인문계와 실업고의 학생수 비율인 3:1을 적용하여 인문계 3개교와 실업고 1개교를 선정하여 인문계 여학생 총 48,201명 중 482명, 실업 계 여학생 15,174명 중 151명을 각각 표집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고등학교 2학년에 한정시킨 이유는 가급적 연령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3. 연구도구

1) 성 접촉

여고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 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 13가지 경험항목에 대해 자가 보고식으로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혀 없다' 0점, '한두 번 있다' 1점, '서너 번 있다' 2점, '대 여섯 번 있다' 3점, '아주 많다'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성 접촉에 대한 인자 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 되는 것이 2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인자의 고유값은 5.111로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키스 등이 해당되며 이를 '가벼운 성 접촉 경험'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인자의 고유값은 2.841로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피임,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 출산 등이 해당되며 이를 '심각한 성 접촉 경험'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a .85였

고, 예비조사에서 Cronbach' a .82, 본 조사에서는 Cronbach' a .85로 나타났다.

2)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Kim(1994)의 한국 성역할 정체감 도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로 측정하였다. 전체 40문항으로 남성성 15개 문항, 여성성 15개 문항, 중성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정체감의 분류 방식은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였다.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성 변인의 점수와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정체감,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정체감,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낮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으면 여성성 정체감, 남성성,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남성성의 Cronbach α = .86, 여성성의 Cronbach α = .76, 중성성의 Cronbach α = .69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성역할 정체감 전체의 Cronbach α = .87, 남성성의 Cronbach α = .88, 여성성의 Cronbach α = .71, 중성성의 Cronbach α = .77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성역할 정체감 전체의 Cronbach α = .91, 남성성의 Cronbach α = .87, 여성성의 Cronbach α = .75, 중성성의 Cronbach α = .80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Chun(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한다. 총 10개 문항으로 5개는 긍정 문항, 5개는 부정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α = .92이었고, 예비조사 결과 Cronbach α = .85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α = .87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도구 수정과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5월 24일 ~ 5월 31일까지 1

개 고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참여 동의를 받은 120명의 여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총 120개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 19개를 제외한 101개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분석과 신뢰도 조사를 하고,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도구는 인자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선정된 인문고 3개교, 실업고 1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 수집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633부였으나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것은 522부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성 접촉,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2) 성 접촉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16.82세였다. 학교의 종류는 74.86%가 인문계였고, 25.14%가 실업계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시 인문계와 실업고의 학생비율인 3:1의 비율로 표집 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41.5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3.72%, 천주교 12.26%, 불교 11.49%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이 51.15%로 가장 많았고, 중상 31.23%, 중하 13.03%, 최상 3.07%, 하 1.5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한달 용돈 규모는 3-5만원 미만이 35.77%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 28.85%, 5-10만원 미만 19.04%, 1만원 미만 9.04%, 10만원 이상 7.31%이었다.

성교육의 측면에서 대상자 중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93.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서 얻느냐는 질문에 교사에게서 얻는다가 31.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친구 30.06%, 컴퓨터 매체 15.61%의 순 이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증거이며, 학교 성교육을 위한 매체 개발과 성교육 전문교사의 필요성과 주기적인 연수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mean
age			16.82
types of school	academic	390(74.86)	
	vocational	131(25.14)	
religion	no	217(41.57)	
	catholic	64(12.26)	
	christian	176(33.72)	
	buddhism	60(11.49)	
	other	5(0.96)	
economic level	upper	16(3.07)	
	middle upper	163(31.23)	
	middle	267(51.15)	
	middle lower	68(13.03)	
	lower	8(1.53)	
pocket money	<10,000	47(9.04)	
	10,000≤money<30,000	150(28.85)	
	30,000≤money<50,000	186(35.77)	
	50,000≤money<100,000	99(19.04)	
	100,000≤	38(7.31)	
sexual education	yes	485(93.45)	
acquisition sources of sexual information	no	34(6.55)	
	parents	24(4.62)	
sexual information	teachers	166(31.98)	
	brothers & sibling	3(0.58)	
	friends	156(30.06)	
	books & Journal	38(7.32)	
sexual problems	computer contents & internet	81(15.61)	
	others	51(9.83)	
	yes	94(18.04)	
	no	427(81.96)	

2. 최종 성 접촉 경험

대상자의 최종 성 접촉에 대한 빈도를 13가지 항목에 따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가 42.15%로 나타났으며,

성 접촉 경험이 있는 여고생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최종 성 접촉 경험은 키스까지 경험 한 경우로 22.03%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뽀뽀까지 7.85%, 포옹까지 7.47%, 어깨동무까지 6.70%, 가슴 만지기까지 5.17%, 손잡기까지 4.79%, 성기 만지기까지 1.53%, 성교까지 1.53%, 피임까지 0.38%, 유산까지 0.19%, 돈을 받고 성교까지 0.19%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sexual contact

level of sexual contacts	N(%)
never	220(42.15)
1. holding hands	25(4.79)
2. arms around	35(6.70)
3. acts of embracing	39(7.47)
4. kiss	41(7.85)
5. french kiss	115(22.03)
6. touch breasts	27(5.17)
7. touch sexual organs	8(1.53)
8. coitus	8(1.53)
9. contraceptions	2(0.38)
10. pregnancy	0
11. abortion	1(0.19)
12. prostitution	1(0.19)

3.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이 32.57%로 가장 많고, 미분화성 31.61%, 남성성 18.97%, 여성성 16.86%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ex role identity

sex role identity	N(%)
masculinity	99(18.97%)
feminity	88(16.86%)
androgyny	170(32.57%)
undifferentiated	165(31.61%)

4. 여고생의 성접촉 수준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1)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접촉 경험의 차이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 접촉 경험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손잡기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4.56, p=.0037),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손잡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동무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6.36, p=.0003),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어깨동무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옹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2.93, p=.0331),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포옹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뽀뽀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3.04, p=.0288),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뽀뽀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피임,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 등의 경험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 접촉 경험을 인자분석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가벼운 성 접촉 경험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20, p=.0059),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가벼운 성 접촉 경험은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각한 성 접촉 경험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98, p=.404).

2)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able 5>와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양성성을 지닌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이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을 지닌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4.50, p<.0001).

3) 최종 성 접촉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최종 성 접촉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성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군과 각각의 성 접촉까지 경험한 군들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50, p=.127).

또한 최종 성 접촉 수준을 인자분석 결과에 따라 그룹을 구분한 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 접촉을 전혀 경

〈table 4〉 sexual contact depending upon sex role identity

sexual contact		masculinity (A)	feminity (B)	androgyny (C)	undifferentiate (D)	F(p)	DUNCAN test	
1. holding hands	Mean	1.565	1.840	2.123	1.460	4.56(.0037)***	C>A, D	
	Std Dev	1.733	1.760	1.781	1.701			
2. arms around	Mean	1.232	1.409	1.811	1.066	6.36(.0003)***	C>A, D	
	Std Dev	1.602	1.651	1.730	1.482			
3. acts of embracing	Mean	1.030	1.284	1.435	0.975	2.93(.0331)*	C>A, D	
	Std Dev	1.593	1.618	1.583	1.443			
4. kiss	Mean	0.767	0.931	1.176	0.757	3.04(.0288)*	C>A, D	
	Std Dev	1.398	1.499	1.469	1.264			
5. french kiss	Mean	0.707	0.659	0.994	0.733	1.72(.1610)		
	Std Dev	1.401	1.363	1.449	1.274			
6. touch breasts	Mean	0.262	0.227	0.247	0.127	0.92(.4318)		
	Std Dev	0.910	0.798	0.875	0.531			
7. touch sexual organs	Mean	0.121	0.102	0.070	0.054	0.46(.7130)		
	Std Dev	0.610	0.547	0.468	0.402			
8. coitus	Mean	0.090	0.056	0.058	0.024	0.60(.6154)		
	Std Dev	0.573	0.350	0.417	0.245			
9. contraceptions	Mean	0.070	0.022	0.023	0	1.21(.3056)		
	Std Dev	0.500	0.213	0.306	0			
10. pregnancy	Mean	0.010	0	0	0	1.43(.2338)		
	Std Dev	0.100	0	0	0			
11. abortion	Mean	0.010	0	0	0	1.43(.2338)		
	Std Dev	0.100	0	0	0			
12. prostitution	Mean	0	0.034	0	0	1.65(.1769)		
	Std Dev	0	0.319	0	0			
mild sexual contact		Mean	5.303	6.125	7.541	4.994	4.20(.0059)***	C>A, D
		Std Dev	7.006	7.144	7.331	6.545		
severe sexual contact		Mean	0.566	0.443	0.400	0.206	0.98(.4041)	
		Std Dev	2.458	1.982	1.676	0.966		
sexual contact(total)		Mean	8.924	9.380	11.021	7.106	2.32(.0746)*	C>D
		Std Dev	16.598	14.941	13.596	10.656		

〈table 5〉 self esteem depending upon sex role identity

		masculinity (A)	feminity (B)	androgyny (C)	undifferentiate (D)	F(p)	Duncan test
self esteem	Mean	3.080	2.669	3.051	2.551	44.50(<.0001)***	A,C>B,D
	SD	0.485	0.478	0.455	0.4741		

험하지 않은 군(Group 1), 손잡기에서 키스까지의 경험을 한 군(Group 2), 가슴 만지기에서 돈을 받고 성교까지 경험 한 군(Group 3)들 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67, p=.196$).

IV. 논 의

여고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최종적인 성 접촉의 단

계는 키스로 115명(22.0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뽀뽀까지 7.85%, 포옹까지 7.47%, 어깨동무까지 6.70%, 가슴 만지기까지 5.17%, 손잡기까지 4.79%, 성기 만지기까지 1.53%, 성교까지 1.53%, 피임까지 0.38%, 유산까지 0.19%, 돈을 받고 성교까지 0.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0)의 연구결과에서 이성교제 과정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최종적인 성 접촉 단계가 키스로 26.7%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table 6) self esteem depending upon level of sexual contact

level of sexual contact	N(%)	self esteem Mean(SD)	F(p)
never	220(42.15)	2.823(0.510)	
1. holding hands	25(4.79)	2.900(0.572)	
2. arms around	35(6.70)	3.025(0.496)	
3. acts of embracing	39(7.47)	3.002(0.534)	
4. kiss	41(7.85)	2.831(0.532)	
5. french kiss	115(22.03)	2.775(0.524)	
6. touch breasts	27(5.17)	2.655(0.556)	1.50
7. touch sexual organs	8(1.53)	2.762(0.531)	(.127)
8. coitus	8(1.53)	2.725(0.662)	
9. contraception	2(0.38)	3.300(0.424)	
10. pregnancy	0		
11. abortion	1(0.19)	2.500(.)	
12. prostitution	1(0.19)	3.100(.)	
Group 1	220(42.15)	2.823(0.510)	1.63
Group 2	255(48.85)	2.865(0.534)	(.196)
Group 3	47(9. 0)	2.719(0.557)	

최종 성 접촉 단계를 그룹으로 분류하면, 손잡기에서 키스까지 경험한 군이 48.85%, 전혀 경험하지 않은 군이 42.15%, 가슴 만지기 이상으로 경험한 군이 9%로 나타나, 대상자 스스로 청소년의 신분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항목은 경험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성 접촉 빈도는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저 연령에서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기에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심각한 성 접촉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Bem(1974)의 양성성 이론의 발달과 함께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양성성 성적정체감이 일상생활의 적응과 건강에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양성성 성적정체감의 개인은 능력이 있고 성취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여고생의 성적정체감은 양성성이 32.57%로 가장 많고, 미분화성 31.6%, 남성성 18.97%, 여성성 16.86%로 나타났다. 이는 Kim(1997)의 여고생의 성적정체감에 대한 연구에서 양성성 34.9%, 미분화 34.6%, 남성성 16%, 여성성 14.5%의 유형분포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Kim(1994)의 여고생의 성적정체감의 유형분포가 여성성 31.2%, 미분화 30.1%, 양성성 23.8%, 남성성 14.9%와 비교할 때 양성성의 분포가 많아진 반면, 여성성 정체감이 많이 줄어든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뚜렷했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식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상적인 정체감의 유형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여고생의 양성성 유형이 증가되고, 전통적인 여성적 특성은 감소되면서 여성성의 분포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적활동을 통한 자신의 지식을 재정립할 시기를 박탈당하므로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지체되는 현상(An, 1987)으로 인해 여전히 미분화 정체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성성 정체감 집단의 비율이 여성의 여성성 정체감 집단 비율보다 더 증가하고(Fisher & Narus, 1981),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는 성역할 전통주의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Mcbroom(1987)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Feldman and Alto(1996)의 사춘기 대상으로 성적정체감과 성 발달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춘기의 성적 발달은 성적 감정의 전이 또는 역전이를 통한 일련의 매트릭스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발달 과정에 개입하여 성적정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의 성문제는 잘못 형성된 성적정체감으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하였다(Kim, 2000).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따라 지도방침을 정하고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Kim, 2000). 본 연구 결과 양성성 정체감을 지닌 여고생이 남성성이나 미분화 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의 여성들이 비행가담율이 가장 낮다는 보고(Loy 등, 1981)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타난 성 접촉 수준인 손잡기, 어깨동무 등이 요즘의 청소년 세대에서는 비행 수준이라 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성 접촉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가슴 만지기에서 성교 등의 심각한 수준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Kim과 Kim(1995)의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에 있어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44.50, p=.0001$), 남성성과 양성성을 지닌 대상자가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n(1983)의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다음이 여성성이며 미분화집단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Kim(1997)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성성 유형이 많고, 미분화유형이 적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양성성 정체감을 지닌 사람이 행동의 융통성과 더 높은 자존심을 갖고, 성취 지향적이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므로(Bem, 1974, Lee, 1991) 청소년기에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교육을 통해, 성적 모호성이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 성 접촉 단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Lee(1998)의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상과 성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성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적 자아상의 평균이 낮아져 가족적 자아상이 부정적이라는 결과나 Lee(200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 접촉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심각한 성 접촉을 하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를 대단위로 설계했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반복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가져올 수 있으나, 성 접촉 경험에 영향하는지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 접촉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고생의 성접촉 경험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 접촉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의 인문계 고교 200개와 실업계 고교 총 70개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63,375명중 633명을 층화 표집하여 선정된 후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선정된 인문계 3개교, 실업계 1개교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633부였으나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것은 522부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된 성 접촉 경험에 대한 도구, Kim(1994)의 성역할 정체감 도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Chun(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접촉,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 성 접촉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고생에게서 성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42.15%로 나타났고, 최종 성 접촉 경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키스까지 경험한 경우로 22.03%로 나타났다.
2. 여고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이 32.57%로 가장 많고, 미분화성 31.61%, 남성성 18.97%, 여성성 16.86%로 나타났다.
3. 손잡기($F=4.56, p=.0037$), 어깨동무($F=6.36, p=.0003$), 포옹($F=2.93, p=.0331$), 뽀뽀($F=3.04, p=.0288$) 등의 성 접촉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정체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그 외 접촉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성과 양성성을 지닌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이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을 지닌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종 성 접촉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군과 각각의 성 접촉까지 경험한 군들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50$, $p=.127$).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양성성의 성정체감 형성이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성행동의 변화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과 성행동에 대한 반복 연구와 함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성교육시 심각한 성 접촉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3. 한국의 여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 무작위 표출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본 연구는 학교 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솔직함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망 이외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5. 성 접촉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An, Y. J. (1987). *The study on the moral development of the youth development of the youth development status and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measurem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 Clin Psychol*, 42, 155-162.
- Cha, E. S.. (1999).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 sexua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2(2), 357-375.
- Chang, H. S. (1999). *Adolescence psychology*. Seoul: Hackgisa. 199-200.
- Chang, S. B., Kim, S. Y., Han, I. Y., Park, Y. J. (2000). *Pregnancy rate, prevention strategy for teenage girls*. Seoul: The Commission of Youth Protection.
- Chun, B. J. (1974). Self - 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study*, 10, 109 - 129.
- Choi, S. N. (1999). *Human's behaviors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Hansin University Press.
- Choi, Y. S., Chang, C. J., Cho, H. S., Choi, Y. J., Chang, S. B., Park, Y. S., Lee, N. H., Cho, D. S., & Lee, E. H. (1999). *Women's health nursing*. Seoul: Soomoonsa.
- Fischer, J. L., & Narus, L. R. (1981). Sex-role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adulthood. *Sex roles*, 12, 491-500.
- Ku, P. S., Lee, C., Shin, J. C., Kim, T., Song, J., Hong, M. H., & Park, Y. J. (1996). Sexuality on adolescents. *J of Korea OB & Gyn Academy*, 39(6), 1007-1016.
- Kim, E. J. (1997). *Relationship among self esteem, gender identity, and sexual consciousnes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H. S. (1999).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sexual activity in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2(2), 339-356.
- Kim, J. H., & Kim, E. K. (1995). *A study on female delinquency*. Korea Institution of criminology.
- Kim, Y. H. (1994).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s and learned helplessness of Korean youths*. Seoul: JeongMinSa.

- Kim, Y. H. (2000). A study on the effects on the Korean adolescents's sexual role identity and attitude by the audio - visual program for sexual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30(6), 1556-1568.
- Kye, S. Y., & Moon, I. O. (1999). The study on change in sex -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through sex education.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137-155.
- Lee, C., Sunwoo, T. W., & Ku, P. S. (1999). a study of sexuality in Korean adolescence. *J of Korea OB & Gyn Academy*, 42(2), 307-320.
- Lee, J. E. (1991). *Study on learned helplessness based on sex-role identity and attribution typ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E. (1998). *The relationship of self - image, sexual attitude, impulsivity and sexual behavior in 7th and 10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Lee, S. K. (2000).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 - esteem, self - 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Loy, P., & Norland, S. (1981). Gender convergence and delinquency. *Sociol Q*, 22, 275.
- Mcbroom, W. H. (1987). Longitudinal change in sex role orientations: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Sex roles*, 16, 439-451.
- Ministry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9). *Teachers make androgyny equivalent school culture*. Ministry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 Orr, D. P., Silbrant, M. L., Black, D. J., Rauch, S. P., & Ingersoll, G. M. (1989). Reported sexual behaviors and self - esteem among young adolescents. *Am J Dis Child*, 143(1), 86-90.
- Park, Y. J., Ku, P. S., Kim, T., Shin, J. C., Lee, C., Moon, J., & Oh, M. J. (1998). Pregnancy, abortion and delivery rates for Korean teenagers. *J Korean Acad Nurs*, 28(3), 573-582.
- Park, Y. S. (1999). *Korea's pornographic culture in century*. Sindonga ma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oun, M. Y. (1983).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sex-role identity and self- concept & social adjustment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Yoon, K. H. (1998). *Sexual culture and psychology*. Seoul: Hakgisa.

- Abstract -

A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tact, Sex Role Identity, and Self Esteem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Sohn, Jung Na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tact, sex role identification, and self esteem in Korean girls'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22 girls, who were stratified samples from a target population of 63,375 11th grade students from 200 regular

* Hanseo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high schools and 70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Korea from June 22 to July 18, 2002. Data were processed with the SAS program. **Results:** It was found that 42.51% of girls haven't experienced any sexual contact at all.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final level of sexual contact was 'kiss', which was 22.03%. The 'androgyny' type among sex role identities of girls was most common, 32.57%, being followed by the 'undifferentiated' type 31.61%, the 'masculinity' type 18.97%, and the 'femininity' type 16.86, in that order. The

sexual contacts such as 'holding hands', 'arms around', 'embracing', and 'ki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sex role identity types. The score for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sex role identity types. The score for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inal level of sexual contact.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ex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delay the sexual contacts of girls.

Key words : Sexuality, Sex role identity, Self-esteem